

GYEONGNAM INVESTMENT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이슈



# 경남 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 산업·경제이슈  
**CONTENTS**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김보배 연구위원

1. 경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여성 고용동향	1
2. 경남 여성 취업자 변화 및 특성	4
3. R&D 투자와 여성 인력 활용 구조	8
4. 여성 일자리 정책 동향과 시사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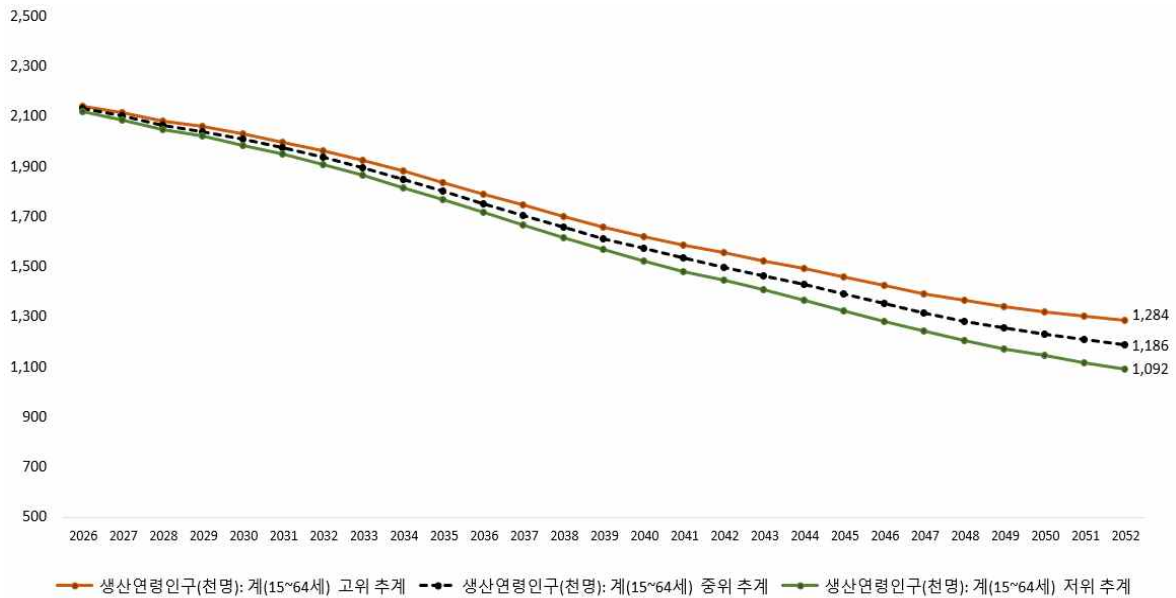
**01** 경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여성 고용 동향

■ 경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제

- 경상남도 장래인구추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위추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2026년 2,132천명에서 2052년 1,186천명으로 약 44.4% (946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고위추계 역시 동기간 2,143천명에서 1,284천명으로 약 40.1%(859천명) 감소했고, 저위 추계는 2,121천명에서 1,092천명으로 48.5%(1,029천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의 감소는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 둔화와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남 장래인구추계(2026-2052)**

(단위: 천명)



주 :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이동(국내, 국제)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로, 고위추계(최대인구 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고위가정과 국내이동 중위가정을 조합, 저위추계(최소인구 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저위가정과 국내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경남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 2032년 경남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32년 경남의 전체 인력 부족분은 72,724명(전체 수요 대비 △4.3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109,306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다음으로 농림어업(△88,284명)과 고령화 수요와 직결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38,456명의 인력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임

### 2032년 경남 인력 수급 전망

(단위: 명, %)

산업	2032 노동수요	2032 노동공급	2032 부족분 (공급-수요)	'22취업자대비 '32부족분(%)
농업, 임업 및 어업	181,093	92,809	△88,284	△49.69
제조업	350,199	240,893	△109,306	△27.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090	5,276	1,185	20.1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692	11,606	△4,086	△35.60
건설업	98,559	127,631	29,071	26.84
도매 및 소매업	116,813	158,067	41,253	27.77
운수 및 창고업	89,469	108,089	18,619	19.22
숙박 및 음식점업	137,342	109,663	△27,679	△19.94
정보통신업	23,160	51,516	28,355	161.43
금융 및 보험업	26,731	40,337	13,605	34.25
부동산업	22,543	32,871	10,327	49.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064	69,984	33,919	90.9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9,406	85,887	36,480	73.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295	63,922	△26,373	△32.38
교육 서비스업	91,403	92,633	1,229	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4,653	186,197	△38,456	△23.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182	27,907	△1,275	△4.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792	59,306	8,513	14.08
전체	1,637,501	1,564,777	△72,724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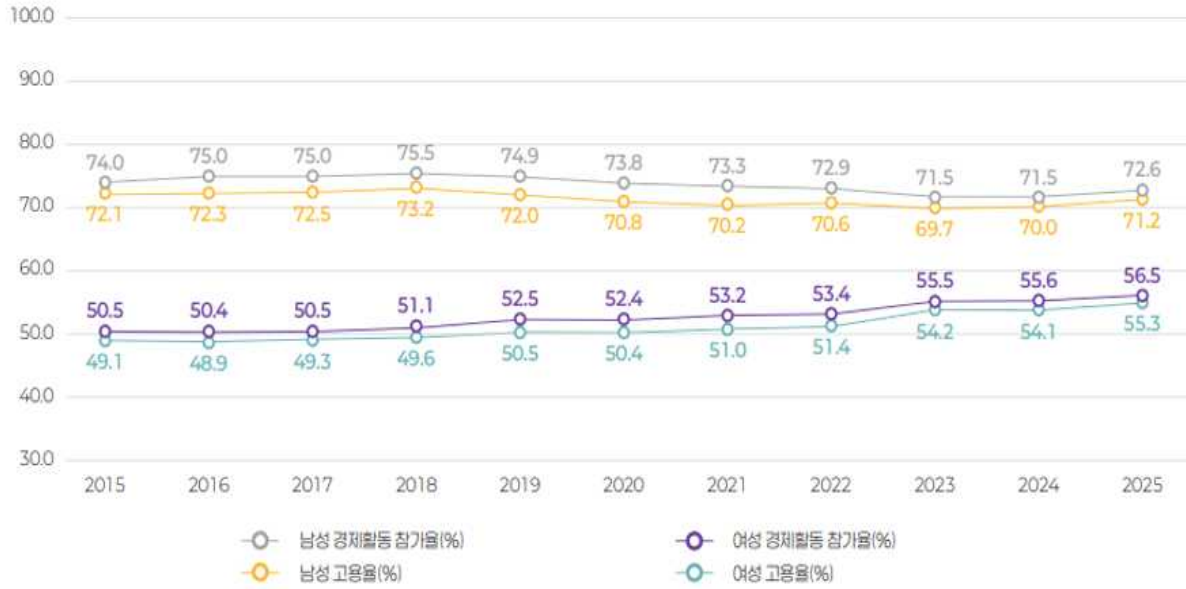
출처 : 이철희·엄상민(2024); 「2024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

#### ■ 경남 여성 고용 증가와 성별 격차

-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경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6.5%로 2015년(50.5%)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동기간 고용률 역시 49.1%에서 55.3%로 동반 상승하였음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15%p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성별 간 노동시장 참여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성별 고용동향(2015-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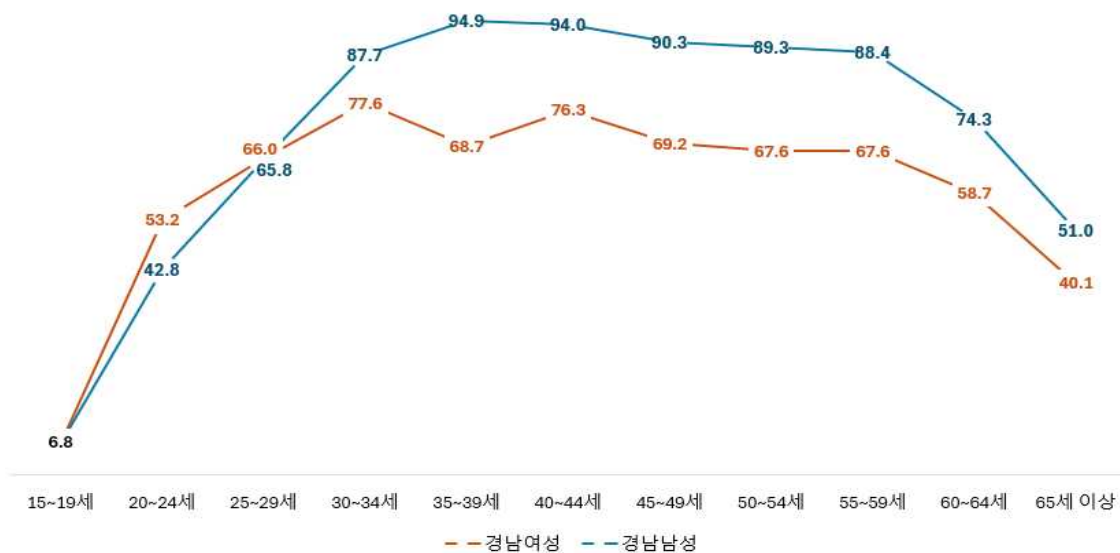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4/4분기 경남 여성 고용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 생애주기별 여성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 지역의 성별 노동시장 참여 격차는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 양상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큼
-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대에 접어들면서 남녀 간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경남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5)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C형 마이크로데이터」, 시도 가중값 적용

- 경남 여성은 20대 후반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후반에 급격히 하락한 뒤,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이 출산·육아와 가사 돌봄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자녀 양육기에 재진입하는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반면 남성은 핵심 노동 연령층인 30~50대에 90% 내외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히 30~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15~25%p 낮은 수준을 보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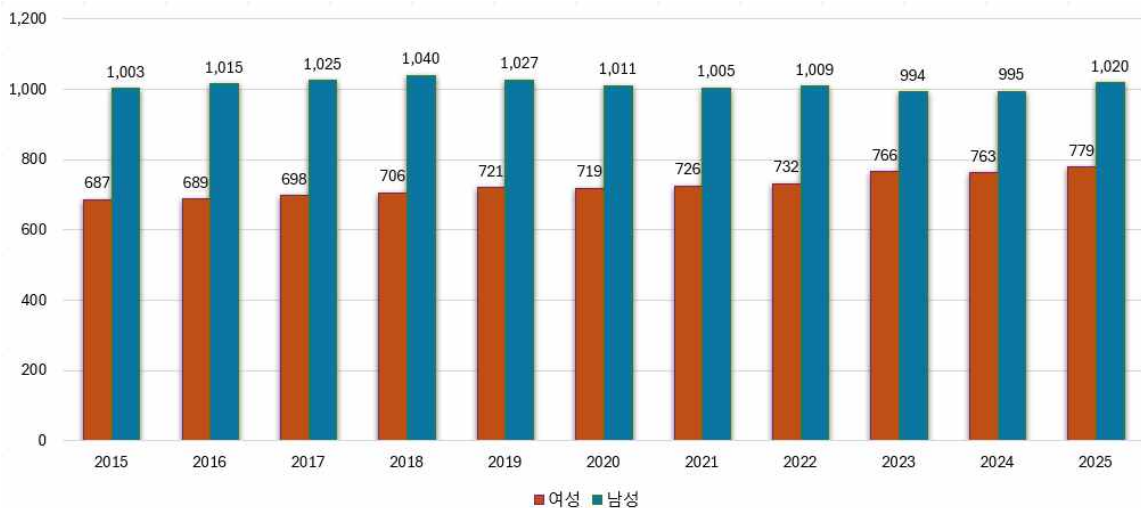
## 02 경남 여성 취업자 변화 및 특성

### ■ 여성 취업자 변화 추이

- 2015년 이후 경남의 성별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경남의 여성 취업자 수는 2015년 687천명에서 2025년 779천명으로 10년간 약 13.4%(92천명) 증가함

경남 성별 취업자 변화(2015-2025)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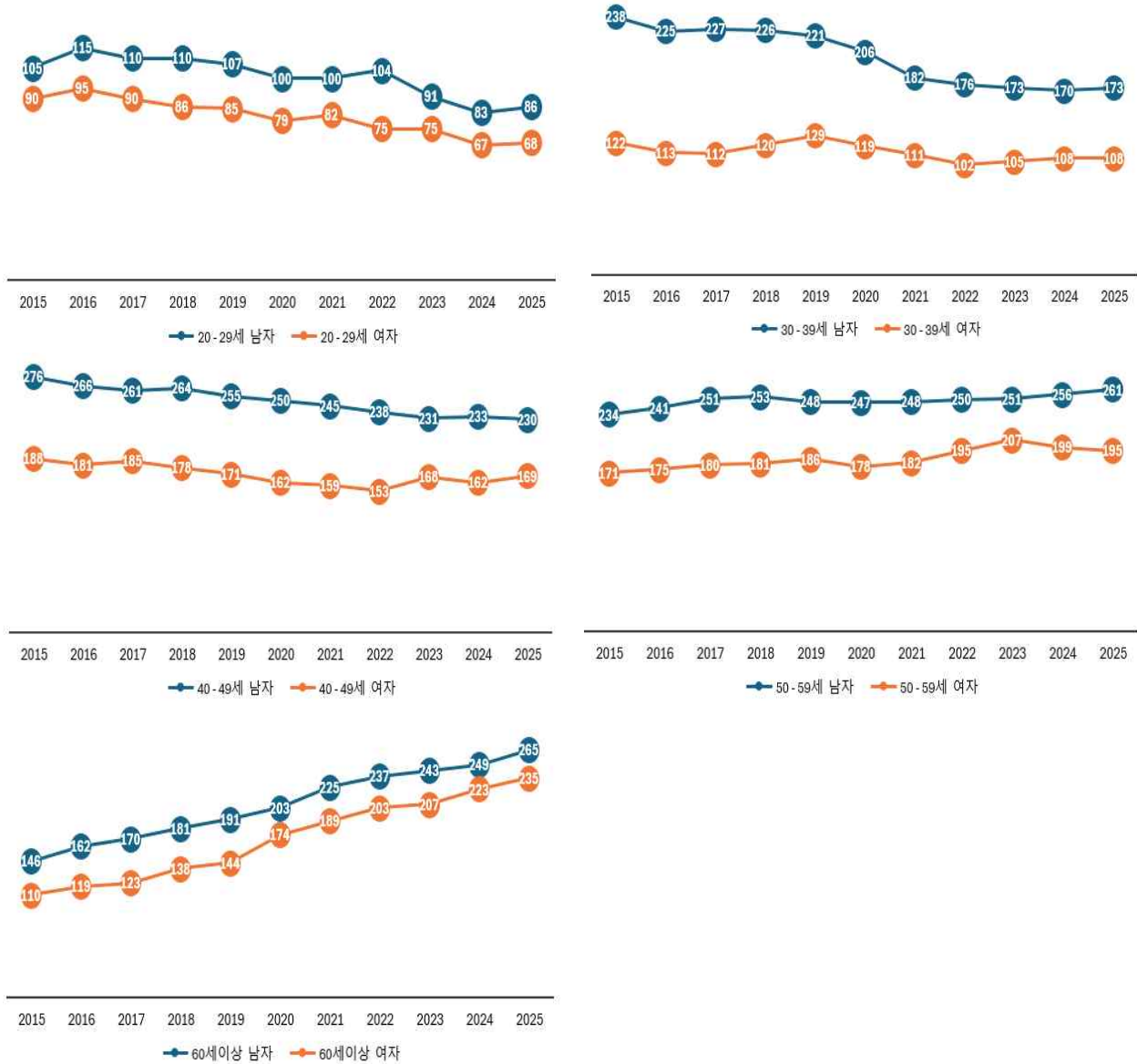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5년 대비 2025년의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경남의 성·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경남의 여성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한 핵심 계층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중장년층임
- 50대 여성 취업자는 2015년 171천명에서 2025년 195천명으로 24천명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2015년 110천명에서 2025년 235천명으로 무려 113.6%(125천명) 증가함

- 향후 안정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진입에 성공한 5060 중장년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초단기·저임금 노동 위주에서 탈피)과 2030 청년 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는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경남 성·연령별 취업자 변화(2015-2025)

(단위: 천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 산업별 여성 취업자 변화

- 경남의 성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17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제조업(96천명), 교육 서비스업(8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7천명), 도매 및 소매업(74천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 경남 여성 일자리는 주로 돌봄, 교육, 대면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었음

- 동기간 산업별 전체 취업자의 여성 비율 역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68.5%), 숙박 및 음식점업(62.6%) 등 여성 집중 경향이 강한 산업 중심으로 높았음

### 경남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산업	2020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704	998	41.4	761	1,018	42.8
농업, 임업 및 어업	78	107	42.2	89	114	43.6
광업	0	2	0.0	0	0	0.0
제조업	90	314	22.3	96	335	2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4	20.0	1	6	2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8	11.1	2	9	15.2
건설업	10	86	10.4	9	79	10.1
도매 및 소매업	91	99	47.9	74	76	49.1
운수 및 창고업	7	89	7.3	11	84	11.2
숙박 및 음식점업	95	54	63.8	77	46	62.6
정보통신업	3	12	18.8	3	11	20.8
금융 및 보험업	21	19	52.5	22	17	56.2
부동산업	9	12	45.0	9	18	3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22	29.0	15	29	34.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	30	38.8	14	30	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45	41.0	42	51	45.1
교육 서비스업	64	31	66.7	82	38	6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7	23	83.6	172	35	8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10	58.3	12	10	5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	32	53.6	30	29	51.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	0	100.0	1	0	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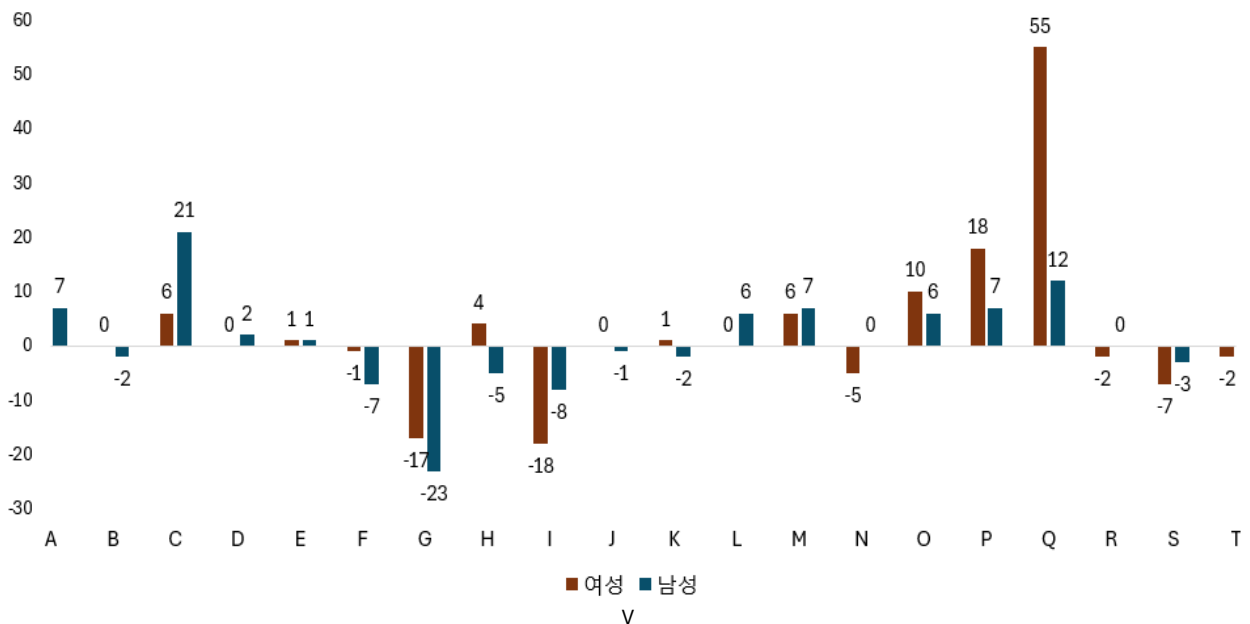
주: 11차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여성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비중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D형 마이크로데이터」, 시군구 가중값 적용

- 2020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경남의 산업별 여성 취업자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취업자는 2020년 상반기 117천명에서 2025년 상반기 172천명으로 55천명 증가하여, 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취업자 수 분석에서 50~60대 중고령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로의 노동시장 유입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향후 2032년 109,306명의 인력 부족이 전망되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는 같은 기간 90천명에서 96천명으로 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산업 인력 수요 확대에 비해 여성 인력 활용 수준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성 고용 확대가 돌봄·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돌봄 관련 직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높은 노동강도, 제한적인 경력개발 기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 과학기술 분야, 디지털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성별 취업자 수 변화(2020-2025)

(단위: 천명)



주: 2020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D형 마이크로데이터」, 시군구 가중값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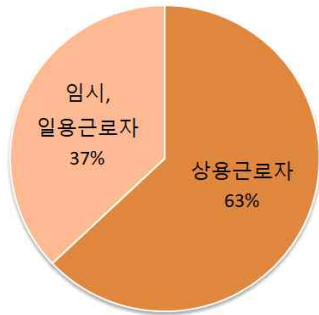
###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 경남 여성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여성 고용률 상승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성별 일자리의 질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남성 임금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81%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상용직 비중이 63% 수준이었고,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여성이 37%를 기록하여 남성(19%)의 약 2배 수준이었음
  - 최근 여성 취업자 유입이 가장 많았던 보건복지 분야를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분해하여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 병원 및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업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93.5%가 상용직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의 과반을 상회하는 57.0%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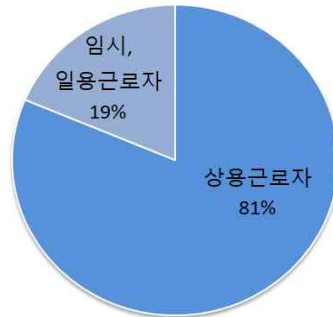
## 경남 성별 임금근로자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비중 비교(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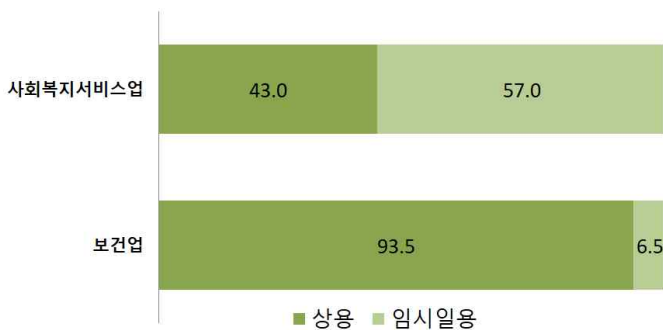
경남 여성 임금근로자



경남 남성 임금근로자



경남 여성 임금근로자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C형 마이크로데이터」, 시도 가중값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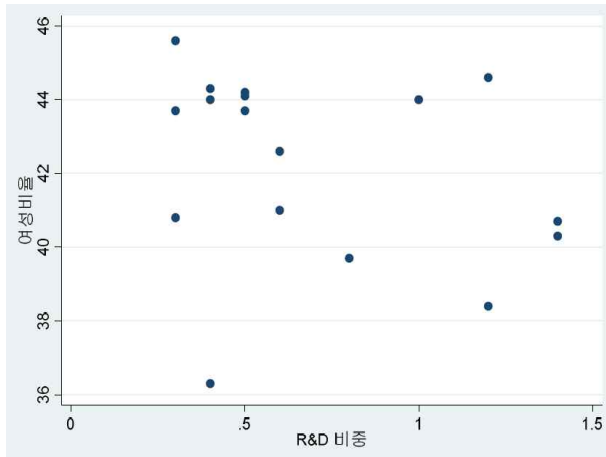
### 03 R&D 투자와 여성 인력 활용 구조

- 여성 일자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산업과 여성 인력 활용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 경남의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산업 고도화를 위해 R&D(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분야에서 여성 인력 활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임
  - 경남의 산업별 R&D 투자 비율과 여성 고용 비율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 비중이 낮은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반대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여성 인력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남
    - 전국 단위에서는 R&D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고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수렴하거나 특정 저 비율 구간에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산업일수록 여성 고용 확대에 이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 경남 역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기술 핵심 산업군에서 여성 고용 비율은 대부분 20~30%대에 머물러 기술 기반 일자리에서 여성 진입의 한계가 뚜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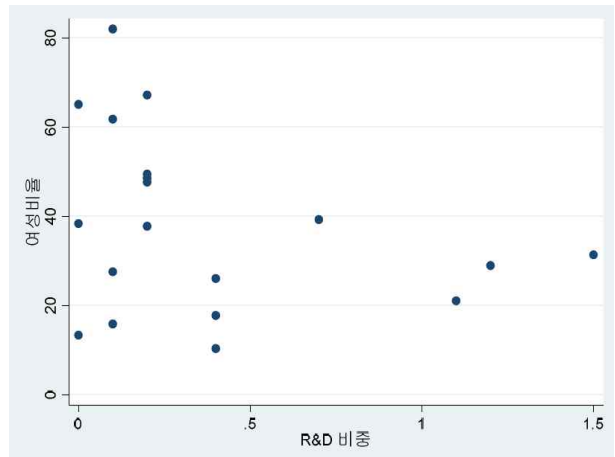
- 따라서 경남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및 R&D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여성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전환형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여성 인력 수요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청년 여성의 이공계·기술 분야 진입 지원, 재직 여성의 직무 전환 및 경력 개발 지원 등 여성의 고부가가치 산업 참여를 촉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전국-경남 R&D 투자비중과 여성고용 비율

(단위: %)



<전국>



<경남>

출처: 김보배 외(2025); 「경상남도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

## 04 여성 일자리 정책 동향과 시사점

### ■ 정부 정책 동향

- 중앙정부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고,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과 일·생활 균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전환하였으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력 유지, 직무 전환, 고령 이후 경제활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
  -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의 청년 여성 진입 촉진) 초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첨단 산업 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핵심 과제로 명시하였음
  - (산업 전환기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중·고령층 및 경력 형성 사각지대 여성을 포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의 이·전직 지원을 통해 특정 저부가가치 업종에 여성 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촉진 기반 조성) 심 노동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서비스(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b>비전</b>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b>목표</b>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b>정책 과제</b>	<b>대과제 (5개)</b>	<b>중과제 (16개)</b>
	1. 청년 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1-1. 사회진출 초기 여성 진로설계 지원 1-2. 청년 여성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1-3. 과학기술첨단 산업 분야 여성 진출 지원
	2.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2-1.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2. 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 2-3. 경력 형성 사각지대 여성 지원 2-4. 단계별 여성 창업인 지원
	3.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3-1.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체계 구축 3-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이·전직 지원 3-3. 지역 중심 여성 일자리 발굴체계 마련 3-4. 여성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4.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4-1.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4-2.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 조성 4-3.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5.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5-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정비 5-2.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 13)

#### ■ 경남 지역 여성 일자리 정책 과제

- 이러한 정책 방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남의 지역 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경남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30대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M자형 경력단절 현상으로 핵심 노동 연령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경남은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 등 특정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여성 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기술혁신 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여성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향후 경남 여성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 예방 중심 정책을 넘어, 청년 여성의 기술 분야 진입 지원, 산업 전환 대응형 직무 역량 강화, 돌봄 관련 직종의 일자리 질 개선 등 생애주기와 산업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반 확대

- 경남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별 인력 부족이 동시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 인력은 지역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육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력 유지 환경 조성 및 일·생활 균형 기반 확충이 요구됨
  - 근로자의 퇴근 동선과 생활권을 고려한 거주지 중심의 영유아·초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사 및 돌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해야 함

■ 여성 고용 확대와 함께 일자리 질 개선 지원

- 경남 여성 임금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여성 고용 증가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경남의 여성 고용 상승을 주도한 핵심 계층은 50~60대 중고령층이며, 이들은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돌봄 분야로 유입됨
- 특히 여성 취업자가 집중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과 제한적인 경력개발 기회 등 고용의 질 개선 과제가 존재함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의 57.0%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의 질이 취약함
-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정 임금체계 구축, 고용 안정성 강화, 직무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 코디네이터나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가 등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경력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여성 인력의 신산업 진입 지원

- 여성 일자리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제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향후 인력 수요가 큰 산업에서 여성 활용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32년 경남 제조업 분야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력 부족이 전망되지만, 기술집약도가 높은 R&D 투자 상위 산업일수록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정체되어 있음
- 기술전환에 따라 생성될 신규 일자리의 여성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대상 이공계·디지털 역량 강화, 제조업 기술직 진입 지원,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직업훈련 확대 등 산업전환 대응형 여성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조업 기술직의 진입 장벽을 깨기 위해, 지역 거점 산단의 스마트 공정 전환과 연계하여 스마트팩토리 운용, R&D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제어 등 고부가가치 첨단 직무 중심으로 여성 맞춤형 기술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함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이공계 청년 여성들을 위한 산학협력 인턴십을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여성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경남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 참고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김보배(2025), 2025년 4/4분기 경남 여성 고용동향 제20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김보배·박지영·오지혜·이정희·이혜림(2025), 경상남도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오은진(202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고도화 전략,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철희·엄상민(2024), 지역별 산업별 인력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성미·강민정·김효경·김현경(2024), 저출생 시대의 여성노동시장 특징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IBA** GyeongNam Investment &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동향**

2026년 6월호 통권 제63호

발행일	2026년 6월 24일
발행인	오재호
편집인	곽소희
집필인	윤종철·박예은
발행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5140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본 간행물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경남 산업·경제동향」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제분석센터 (T.055-230-2805, 2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메일링 서비스(<https://www.giba.or.kr>) 신청을 통해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